

소득이동성의 변화 추이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연결자료를 이용하여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이동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90년대 초반에 비해 소득이동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소득이동성의 둔화와 함께 최근들어 빈곤탈출률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소득재분배정책은 소득이동성의 저하 경향 자체를 상쇄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 따라서 재분배정책의 확대와 시장에서의 소득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 소득이동성의 의미와 중요성

- 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은 가구 혹은 개인의 소득 지위가 얼마나 활발하게 변하고 일어나는지를 의미함
 -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 사회적 지위의 변화가능성을 의미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소득이동성은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소득지위로 국한하여 보는 개념임
- 최근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가 불평등해졌다는 것은 기존의 많은 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 있음
 - 특정 시점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지위가 낮은 개인이 다시 소득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문제는 덜 심각할 것임
 -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세대 동안, 혹은 자녀의 세대에서 소득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상실감은 계층적 위화감을 키울 수 있고, 그로 인해 사회통합은 저해될 것임
- 따라서 정태적 관점에서 파악한 불평등과는 별개로 동태적 측면에서 소득이동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분배구조 변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
 - 이하에서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연결하여 1990년부터 2008년까지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이동성 변화를 살펴볼 것임
 - 또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인 이상 비농어가 가구의 소득이동성 변화를 살펴볼 것임
 - 이하에서 살펴볼 것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사이의 소득지위의 이전가능성이 아닌 동일 세대 가구의 소득지위 변화임

2. 소득이동성의 변화 실태

□ 소득지위의 이동성은 두가지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음

- 첫째는 전체 가구를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한 후, 소득 분위간의 이동을 소득지위의 이동으로 정의
- 다른 하나는 전체 가구를 4개의 계층으로 구분한 수, 각 계층 간 이동을 소득지위의 이동으로 정의하는 것임. 이때 4개 계층은 중위가구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50% 미만 계층(빈곤층), 50~75% 계층(중하층), 75~150% 계층(중상층), 150%이상 계층(상위층)임

□ 소득분위간 이동성을 기준으로 살펴본 소득이동성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표 1)

〈표 1〉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분위 변동비율 변화

(단위: %)

기간	상승	유지	하락	변동 =상승+하락	2분위 이상 상승	2분위 이상 하락	2분위 이상 변동
'90-'91년	32.8	34.3	32.9	65.7	15.6	15.0	30.6
'91-'92년	34.1	33.7	32.2	66.3	15.2	14.9	30.1
'92-'93년	34.9	35.3	29.9	64.7	13.8	14.3	28.1
'93-'94년	32.6	35.9	31.6	64.2	14.5	14.4	29.0
'94-'95년	32.4	36.6	30.9	63.4	13.3	13.7	27.0
'95-'96년	32.1	37.8	30.1	62.2	12.6	12.4	24.9
'96-'97년	32.3	36.6	31.1	63.4	14.0	13.1	27.1
'98-'99년	32.6	36.0	31.4	64.0	12.9	12.9	25.8
'99-'00년	31.7	36.0	32.3	64.0	13.8	14.2	28.1
'00-'01년	31.5	37.4	31.1	62.6	12.4	12.5	24.9
'01-'02년	30.9	39.1	30.1	61.0	12.0	11.9	23.9
'03-'04년	31.5	38.1	30.4	61.9	12.6	13.1	25.8
'04-'05년	29.7	42.3	28.1	57.7	11.6	11.2	22.7
'05-'06년	30.3	40.6	29.2	59.4	11.9	11.7	23.6
'06-'07년	27.8	44.5	27.7	55.5	9.3	9.0	18.3
'07-'08년	27.7	46.1	26.2	53.9	8.9	8.9	17.8
'90-'08년 평균	31.5	38.1	30.3	61.9	12.7	12.8	25.5
'90-'97년 평균	33.0	35.7	31.2	64.3	14.0	14.1	28.1
'98-'02년 평균	31.7	37.1	31.2	62.9	12.9	12.8	25.7
'03-'08년 평균	29.4	42.3	28.3	57.7	10.8	10.8	21.6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 '90~'97년간 연평균 소득분위 변동확률은 64.3%였으나 '98~'02년간은 평균 62.9%로 줄어들었고, '03~'08년 사이에는 57.7%로 감소
- 2개 분위 이상 변동한 가구의 비율도 동일한 추이를 보여 28.1% →25.7% →21.6%로 감소
- 특히 최근들어 소득분위의 이동성은 50%대로 떨어지는 등 감소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2003년 이후 2인 이상 비농어가 가구의 소득이동성도 지속적 저하경향을 보임 (표 2)

- '03~'04년간 61.6%였던 소득분위 변동 가구의 비율은 '07~'08년간 53.8%로 감소
- 2개 분위 이하 변동 가구의 비율도 '03~'04년간 26.5%였던 것이 '07~'08년간에는 18.8%로 감소
- 같은 기간동안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어촌을 포함한 비농어가 가구의 소득분위이동성 사이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2〉 2인 이상 비농어가 가구의 소득분위 변동비율 변화

(단위: %)

기간	상승	유지	하락	변동	2분위 이상 상승	2분위 이상 하락	2분위 이상 변동
'03-'04년	31.7	38.4	29.9	61.6	13.4	13.2	26.5
'04-'05년	32.2	39.7	28.2	60.3	12.7	12.4	25.2
'05-'06년	30.1	40.3	29.6	59.7	12.0	12.1	24.1
'06-'07년	28.3	44.8	26.9	55.2	9.6	10.2	19.8
'07-'08년	27.1	46.2	26.7	53.8	9.7	9.2	18.8
평균	29.4	42.3	28.3	57.7	10.8	10.8	21.6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계층간 이동 실태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계층간 이동성이 다소 증가했다가 2003년 이후 다시 하락하여, 1990년대 초반에 비해 계층간 이동성이 둔화된 모습을 보임(표 3)

〈표 3〉 도시근로자 가구 계층이동 비율 변화

(단위: %)

기간	상승	유지	하락	변동=상승+하락
'90-'91년	14.3	71.6	14.06	28.4
'91-'92년	12.0	73.1	14.9	26.9
'92-'93년	13.1	72.3	14.7	27.7
'93-'94년	14.8	71.6	13.6	28.4
'94-'95년	15.3	70.9	13.8	29.1
'95-'96년	13.0	72.5	14.4	27.5
'96-'97년	15.1	71.9	13.0	28.1
'98-'99년	15.5	70.5	14.0	29.5
'99-'00년	16.9	68.0	15.2	32.0
'00-'01년	15.9	69.7	14.4	30.3
'01-'02년	15.5	70.6	14.0	29.4
'03-'04년	14.6	70.4	15.0	29.6
'04-'05년	12.6	71.9	15.6	28.2
'05-'06년	14.2	70.2	15.7	29.9
'06-'07년	12.3	73.9	13.8	26.1
'07-'08년	12.7	75.9	11.4	24.1
'90-'08년 평균	14.2	71.5	14.2	28.5
'90-'97년 평균	13.9	72.0	14.1	28.0
'98-'02년 평균	15.9	69.7	14.4	30.3
'03-'08년 평균	13.3	72.4	14.3	27.6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 2인 이상 비농어가 가구의 소득계층 이동성은 '03~'06년간은 정체되어 있다가 '06년 이후 하락하기 시작함(표 4)

〈표 4〉 2인 이상 비농어가 가구의 소득계층이동 비율 변화

(단위: %)

기간	상승	유지	하락	변동=상승+하락
'03-'04년	16.3	68.9	14.9	31.1
'04-'05년	14.7	68.9	16.3	31.1
'05-'06년	15.6	69.0	15.5	31.1
'06-'07년	13.4	73.1	13.5	26.9
'07-'08년	13.3	74.8	12.0	25.3
평균	14.6	70.9	14.4	29.1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시기와 2003년 이후의 시기를 비교하면 계층별로 소득이동 양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표 5)

- 중상층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2003년 이후에 계층상승 비율이 높아짐
- 빈곤층과 중하층은 반대로 계층상승 비율이 줄어들고 반대로 계층하락 비율이 높아짐
- 빈곤층의 계층 상향이동비율이 빨리 줄어들었고 중하층의 계층 하락비율이 가장 빨리 증가함. 이는 소득이동성 저하의 효과가 특히 저소득층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줌

〈표 5〉 도시근로자 계층 상승/하락 비율의 변화

(단위: %)

구분	계층 상승 비율			계층 하락 비율		
	1990-1997년	1998-2002년	2003-2008년	1990-1997년	1998-2002년	2003-2008년
빈곤층	43.6	43.5	31.1	-	-	-
중하층	33.5	33.7	28.2	12.0	15.9	17.6
중상층	8.7	10.3	9.5	12.5	13.0	13.5
상위층	-	-	-	26.0	23.0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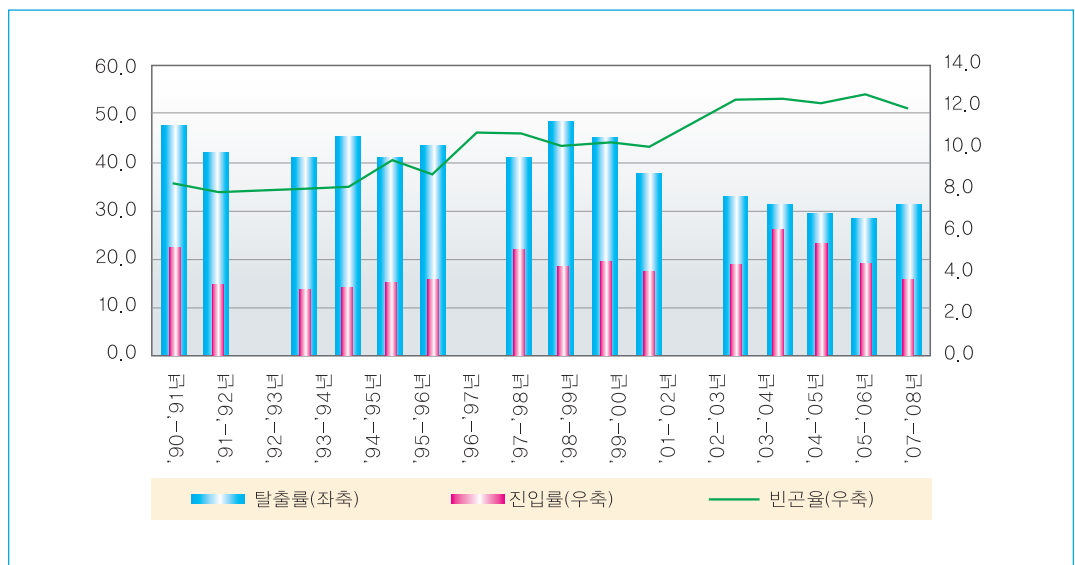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 소득이동성의 저하와 함께 빈곤탈출률도 낮아짐

- 전년도 빈곤층 가운데 금년도 빈곤탈출 가구를 의미하는 빈곤탈출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반면 전년도 비빈곤층 가운데 금년도 빈곤층으로 진입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빈곤진입률은 2005년 이후 감소세를 보임

〈그림 1〉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율, 빈곤진입률, 빈곤탈출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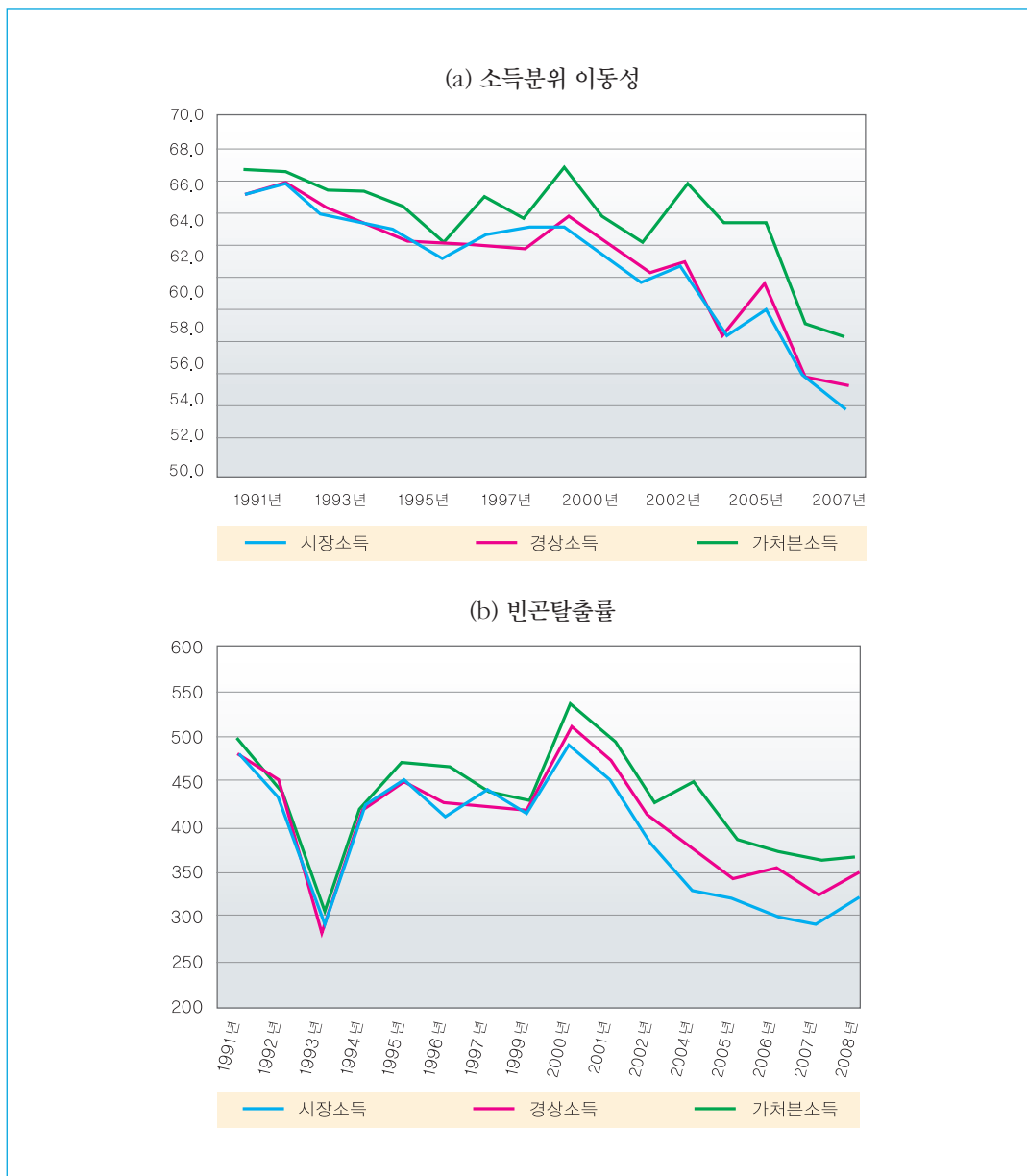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를 패널화하여 분석

□ 소득범주별로 소득이동성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재분배정책은 소득이동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시장소득 대비 가처분소득의 소득이동성이 높음. 공적이전과 사회보험료, 조세 등을 통한 재분배정책이 소득이동성을 높임
- 또한 공적이전소득은 빈곤탈출률을 높이고 있으며, 그 효과는 2003-2005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그림 2]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범주별 이동성 비교

(단위: %)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를 패널화하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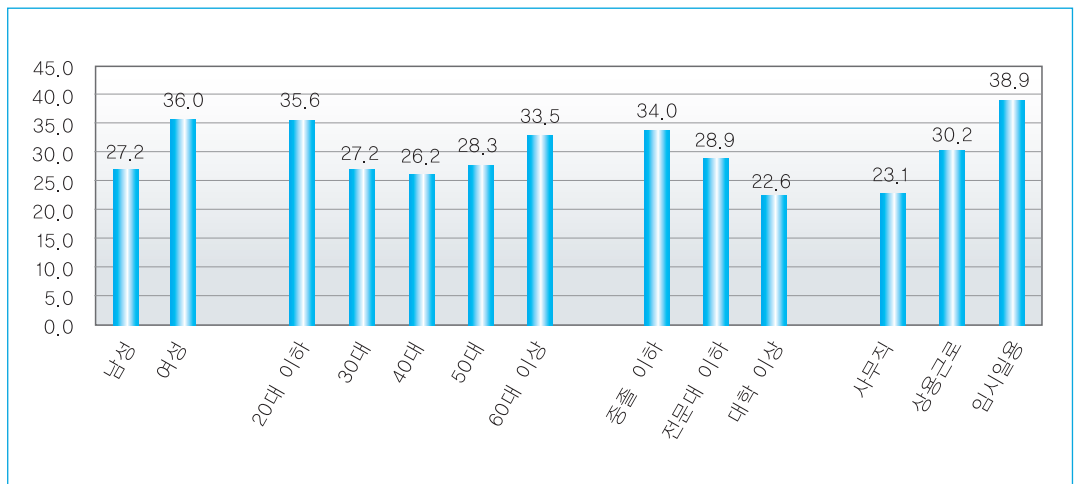
3. 소득분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인구학적 특성별로 소득계층 이동성을 비교한 결과 성, 여성, 학력, 종사상 지위별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됨(그림 3)

- 여성 가구가 남성가구에 비해 소득계층 이동확률이 평균 약 9%p 가량 높았음
- 20대와 60대 이상 가구주의 소득계층이동확률이 높은 반면 기타 연령대의 이동확률은 낮음
- 학력 면에서는 저학력 가구가, 종사상 지위 면에서는 임시일용직 가구의 계층이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불안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3] 도시근로자 집단별 계층이동성 비교('90~'08년간)

(단위: %)



□ 3~7분위 도시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득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취업가구원수 비율의 증가가 소득분위 상승확률을 높인다는 특징은 모든 시기에서 분명히 나타남

- 여성가구는 남성에 비해 소득분위의 상승과 하락이 모두 활발하게 나타남
- 가구주가 대졸이라는 사실이 소득분위 상승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이지는 않으나, 계층 하락 확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음
- 2003년 이후에는 사무직이라는 사실이 소득분위 하락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 못함

□ 거시경제 변수들 가운데 소득이동성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성장률임

- 경제성장률의 증가는 소득분위의 상승가능성과 하락가능성을 모두 높임. 반면 경제성장률은 빈곤탈출률을 높이고 빈곤진입률을 낮춤
- 불평등의 심화는 소득분위 상승확률을 높이는 데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지니지 못하지만, 소득분위 하락 확률을 높이는 데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지님

4. 시사점

-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계층 상승확률을 높이고 계층하락 확률을 낮추는 것이 좋으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특정 집단의 소득이동성에 대해 정책적 개입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적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빈곤층으로의 진입을 방지하고 빈곤층으로부터의 탈출을 촉진하는 것
 -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빈곤층 보호라는 정태적 관점에서 벗어나 빈곤정책의 대상을 동태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

- 재분배정책이 소득이동성을 높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동성의 저하경향을 상쇄하지 못한다는 사실 역시 중요함
 - 따라서 소득이동성의 상승을 위한 재분배정책의 확대와 동시에 시장에서의 소득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강신욱(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 문의(02-380-8133)